

따르다: 고대의 길에서 새로운 삶을 찾다

7주차 “희생의 길”

고린도후서 5:14-15, 사도행전 8:36-38, 마태복음 16:25, 로마서 6:3-4

2023년 2월 12일

• 올해 우리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관행이나 자세에 대한 일련의 대화에 참여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.

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삶을 향하여

•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고대의 길.

• 새 생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.

• 기쁨 • 만족 • 의미 • 희망

•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.

• 청취 • 아름다움 • 진실 • 상호의존성 • 회복력.

• 이제 이번 주에는 반직관적인 방법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
이 길을 실제로 걷기 위해 당신의 부분에 대해 생각하십시오.

•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지하는 단어가 아닙니다.

• 우리가 이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이 단어가 우리의 가치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

• 그리고 우리 문화에서는 개인의 행복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.

•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:

희생의 길

• 따라서 희생이라는 개념에 대해 너무 깊이 들어가기 전에 행복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.

행복

•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.

행복이란 무엇입니까?

•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.

• 흥미로운 질문이죠?

•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특정 결론에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.

• 행복은 대상이 아닙니다.

- 행복은 장소가 아닙니다.
 - 행복은 본질적으로 금전적인 것이 아닙니다.
 - 행복은 사람이 아니다.
 - 이제 우리는 행복을 발견하기 위해 그런 것들을 쫓습니다.
 - 우리는 때때로 그런 것들을 행복으로 대체합니다.
 -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런 것들이 정의가 아님을 깨달을 만큼 충분히 똑똑합니다.
 - 최근에 누군가 나에게 행복한지 물었습니다.
 - “그렇게 생각합니다.”라고 말했습니다.
 - 한동안 마음에 걸렸습니다. “그렇게 생각해요?”
 -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?
 - 사실 당신이 행복하고 그것을 안다면 박수를 쳐야 하지 않겠습니까?
 - 보십시오, 행복은 정확히 정의하기 어렵습니다.
 - 행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.
 - 행복은 우리가 느끼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.
 - 그리고 행복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.
 - 우리는 그것을 쫓습니다.
 - 이 방에 있는 사람 중 마음속으로...행복해지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.
 -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입니까?
 - 행복은 존재의 상태입니다.
 - 오랜 기간 동안 우리를 정의하는 조건입니다.
 -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?
 -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.
 - 행복은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더 자주 경험할 때입니다.
- 평화 또는 자신감, 그리고 덜 빈번한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, 불안, 또는 분노.
-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결코 슬프거나 불안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.
 - 이는 단순히 일반적으로 그들이
- 그러한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에 대한 경험보다 덜 빈번합니다.
- 기쁨. 평화. 웃음.
 - 그것이 행복입니다.

-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.
- 그럼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
- 행복합니까?
- 기쁨, 평화, 웃음 및 기타 긍정적인 감정의 경험이 분노, 불안 또는 슬픔의 경험보다 더 많습니까?
-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.
- 행복은 존재의 상태이며 특정한 종류의 존재의 상태, 이것에 대해 생각하십시오:
어떻게 우리의 행복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까?
- 물건이 더 필요합니까?
- 더 좋은 곳?
- 다른 직업?
- 더 많은 돈?
- 신체적인 경험?
- 낭만적인 것?
- 성적인 것?
- 화학적인 것?
-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이 행복이 아니라고 말했지만, 올바른 것을 공식화할 수 있을까요?
이러한 것들의 혼합, 우리는 이러한 것들의 올바른 혼합을 얻을 수 있습니까?
올바른 주문, 올바른 양으로 조금 더 행복해지시겠습니까?
-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우리 모두는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흥미롭지 않습니까?
- 그러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'더 행복'해지고 싶을 때
- 우리는 그것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.
-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.
- 그리고 행복 증가에 대해 생각할 때 '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줄 압니다.
희생이 필요합니다.'
- 그것은 예수님의 길의 중심입니다.
- 기독교의 닳을 내리는 원리에 관한 바울의 말을 들어 보십시오.

고린도후서 5:14-15

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하나가 위하여 죽었다 함이로다

그러므로 모두가 죽었다. 15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는 산 자들이 다시 살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

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해서입니다.

• 그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어떻게 새로운 작전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

우리 삶의 원칙.

• 그런 다음 기독교인의 삶의 두 가지 주요 상징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.

• 침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.

• 십자가에 대해 생각하십시오

• 그들은 희생의 개념을 가리킵니다.

•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.

• 그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예수 안에서 이 삶을 사는 방식을 정의하는 현실입니다.

• 상징인 동시에 패턴이기도 합니다.

• 잠시 그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.

• 지금. 틀림없이. 침례는 상당히 특이한 관행입니다.

• 나는 호수, 수영장, 강, 바다 등 거의 모든 형태의 물을 좋아합니다.

•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.

• 첫째, 물튀기는 것을 싫어합니다.

• 물튀기는 사람은 다음에 누군가에게 물을 튀기러 갈 때를 기억하십시오.

• 아무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.

• 계속하면 사람들도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.

• 두 번째로 싫은 점은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.

• 이것은 우리를 세례의 이상한 점으로 되돌립니다.

• 도대체 왜 한 사람이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 나서서

물 탱크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입니까?

• 우리는 올해 부활절 일요일에 침례를 받습니다.

그날 침례 받기에 관심이 있다면 정보 센터나 온라인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.

• 그러나 이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궁금한 적이 있다면 혼자가 아닙니다.

• 많은 사람들이 세례가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.

-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나 이야기가 있습니다.
- 우리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야곱이 내려가는 이야기로 끝납니다.
가족과 함께 이집트로.
- 이 작은 씨족은 이스라엘 국가의 시작입니다.
- 그러나 성경의 둘째 책인 출애굽기 1장을 보면
야곱 일족의 70명은 큰 민족으로 발전하여 잔인하게 노예가 되었습니다.
이집트 왕들에 의해.
- 그래서 여기에서 그들은 성장하는 모세가 나올 때까지 수세기 동안 억압받는 백성입니다.
바로의 집에서 애굽 이름을 가진 자가 일어나 그들을 구원하려 하여
- 출애굽기 12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자유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.
- 일련의 전염병이 있습니다.
- 유월절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.
- 그리고 나서,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라고 요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.
그들의 땅-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풀어줍니다.
- 그 직후에 그들은 마음을 바꾸고 그들을 쫓기 시작합니다.
- 여기에서 이미지를 포착하십시오.
- 그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.
- 탈출을 원합니다.
- 그리고 그들이 자유로워지는 순간, 상황은 역전되고 필사적입니다.
- 어떤 식으로든 친숙하게 들리나요?
- 그런 다음 출애굽기 14장에서 그들은 홍해와 파라오의 바다 사이에 갇힌 자신을 발견합니다.
- 디즈니 영화 이집트의 왕자를 본 적이 있거나 교회에서 자랐다면 알 것입니다.
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.
- 바다가 갈라지고 백성이 지나가며 이집트인들이 추격하면 바다가 닫힙니다.
그들에게 그들은 모두 멸망합니다.
- 이 건널목은 나중에 '모세의 세레'라고 합니다.
- 물은 그들이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 넘어가는 것을 상징했습니다.
- 물은 속박된 삶에서 구출되는 것을 상징합니다.
- 물은 옛 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탄생을 상징합니다.

- 따라서 우리는 신약성경을 펴서 요한복음을 발견해도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.

사람들을 요단 강으로 인도하는 요단 강가의 침례자, 상징적으로 출애굽을 재연하다.

- 침례는 출애굽의 그림입니다.
- 그는 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.
- 사람들은 로마인의 속박에 지쳤습니다.
- 그들은 노예 생활에 지쳤습니다.
- 그래서 요한은 출애굽의 이미지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었습니다.
- 그리고 이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전체적인 그림은 지나감이나 죽음으로 여겨졌습니다.
- 희생.
- 아무도 - 심지어 세례 요한도 다음에 일어날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.
- 삶의 또 다른 상징 또는 패턴인 십자가 처형으로 빨리 갑니다.
- 십자가 처형은 항상 굴욕을 의미했습니다.
- 십자가 처형은 항상 당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.
- 십자가 처형은 항상 죽음으로 끝났습니다.
- 예수님까지.
- 처음으로 십자가 처형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.
- 처음으로 십자가 처형은 부활로 끝났습니다.
- 새 삶.
- 다른 삶.
- 예수님은 묻히셨습니다. (침례에서 누군가를 낮추는 행동을 취함) 그리고 나서 그는 일으켜졌습니다

(세례로 사람을 살리는 것을 연기하다)

- 그리고 갑자기 사람들이 여러 세대 동안 참여해 온 이 상징이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.
- 그러므로 이 후에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길에 설명된 이사야의 말의 의미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 질문하는 아프리카인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.
- 내시는 그와 빌립이 물을 지나갈 때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.

사도행전 8:36-38

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

“보십시오, 여기 물이 있습니다! 내가 침례를 받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?” 38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. 마차가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매. 그에게 침례를 주었다.

- 그리고 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?
- 출애굽을 경험하고 싶다, 자유를 만나고 싶다, 그것은 내가 죽을 때 오는 것이다, 그리고 새로운 종류의 생명으로 양육됩니다.
- 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.
- 그는 희생적인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.
- 그리고 그의 침례는 그가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상징적 진술입니다.
- 당신은 그것을 잡았습니까?
-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.
- 자동차 범퍼 스티커를 받지 않습니다.
- 그들은 회원 카드를 받지 않습니다.
- 당신이 서명한 계약도, 비밀 약수도 없고 지금 당신이 속해 있습니다.
- 합격할 시험이 없습니다.
-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.
-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.
- 이것이 근본적으로 가장 잘못 이해되고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.

예수의 추종자.

- 이런 종류의 생각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정반대입니다.
- 우리 문화가 생각하고 작동하는 방식에 반대합니다.
-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완전히 반대입니다. 이유를 설명합니다

실제로 예수의 영성을 경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.

-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

마태복음 16:25

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

- 그렇다면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?

-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정의하는 모든 부분이...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- 그런 다음 새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습니다.
- 그것은 우리의 야망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- 돈, 명예, 권력을 위해 - 그것은 죽는다.
- "브랜드"를 위대하게 만드는 일에 대한 나의 야망...모두 십자가에서 죽습니다.
- 이제 저는 예수님을 유명하게 만들 일을 위해 노력합니다.
-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- 어쩌면 당신의 목표는 승진을 하거나, 편안하게 은퇴하거나, 부의 유산.
- "내년에는 여기로 가거나 저기로 가겠습니다."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.
- 그러나 이제는 전략적으로 봉사하고 희생적으로 살며 사랑하는 예수님
- "향후 18개월 동안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"를 묻는 대신 "우리가 줄 수 있는 것"이 됩니다. 목표는 죽습니다. 그리고 부활합니다.
-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희생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- 2022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양한 "목적"이 있습니다.
-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,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, 대학에 가고, 학위를 받고, 직업을 갖기 위해 돈을 벌고, 가정을 꾸리고, 아이를 키웁니다.
-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없습니다...
-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크고, 더 심오하고, 이들 중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정의적입니다.
-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로 이어졌습니다.
- 그는 희생했다.
- 자신의 지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인 희생으로...궁극적인 하인.
-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.
- 우리 문화의 대부분에서 우리의 의미는 "나는 내 삶이 지속되기를 원한다"는 생각에서 파생됩니다. "나 자신을 넘어서."
- 내 삶이 중요하려면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.

- 그러나 나 자신이 죽는다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..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
-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지혜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-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세상이 보기에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.
- 이것은 희생의 삶이 세상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- 조언을 받는 곳, 결정을 내리는 방법, 접근 방식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

기타 - 모든 것이 이동합니다.

- 우리가 궁극적인 방향과 의미를 위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.
- 그건 그렇고,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.
- 사망이라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.
- 섬김을 받는 대신 섬길 때.
- 받는 대신 줄 때.
- 이기적인 욕망을 억누를 때.
- 당신에 대해 알리는 것을 그만둘 때.
- 그것. 그렇지 않다. 쉬운. 죽음처럼 느껴집니다.
- 그러나 좋은 소식은?
- 저편에는 부활이 있습니다.
-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

로마서 6:3-4

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다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음에? 4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그 가운데 삶의 새로움.

-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양육되었습니다.
- 우리가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.
- 그것은 일이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까? 아니요.
- 여전히 몇 가지를 파악해야 합니다.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.
- 우리는 우리를 방해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. 하나님 그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것이 그가 행하시는 방법입니다.

희생은 당신의 삶의 끝이 아닙니다. 희생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.

- 시간, 에너지, 돈, 생명을 희생하기로 결정했을 때...

그것은 당신이 기쁨과 희망, 의미와 목적에 놀랐을 때입니다.

- 즉, 희생으로 빛어지는 삶은, 우리 마음이 갈망하는 바로 그 것.

• 이스라엘이 홍해 저편에 이르렀을 때...예수께서 바다에서 걸어 나오실 때
빈 무덤...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.

- 이스라엘 가운데는 반대편에 서서 “다 끝났다”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. 아무도 본적이
없다

예수님을 부활시키시며 “이것이 끝이다”라고 말씀하셨습니다.

-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.

- 이것. 이다. 단지. 그만큼. 시작.

- 삽화: JoyDave와 Shiela, Shannon

• 최근 선교팀이 캄보디아와 네팔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, 나는
이 희생의 대화와 관련하여 아름다운 것에 놀랐습니다.

•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많은 안락함과 통제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.
더 많은 행복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삶에 통합될 것입니다.

- 그들은 힘든 곳과 열악한 환경에서 삽니다.

구체적이고 의도적인 희생이 필요한 장소.

-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. 만질 수 있는 진정한 행복입니다.

- 그리고 그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.

- 그리고 그것은 내가 받을 수 있었던 최고의 알림이었습니다.

- 하지만 이것도 생각났습니다.

- 희생의 삶을 살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살 필요는 없습니다.

- 바로 여기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.

- 정말 몇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.

• 나는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더 많은 개인 희생을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고 있습니까?
그리스도를 위하여?

- 나는 희생 속에서 성장하고 있습니까, 아니면 그것에 저항하고 있습니까?

- 내가 기대고 더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?

-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. 일을 조금 단순화하는 것이 지나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,

축복

- 기꺼이 그리고 사랑으로 개인적인 희생에 의지하는 남녀가 되기를 바랍니다.

- 그리고 당신이 인생을 잃었을 때 의미와 희망과 기쁨이 있음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.

예수를 위하여.